

2022 해외출장 가이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KBC



목 차

| | |
|--------------------------|----|
| I. 국가개황 | 3 |
| II. 경제 및 산업 현황 | 5 |
| III. 교역 및 투자 | 11 |
| IV. 시장 특성 및 미팅 시 유의사항 .. | 14 |
| V. 방문 및 체류안내 | 16 |
| VI. 주요 관광지 및 연락처 | 22 |

I. 국가개황

1. 지도



2. 일반사항 및 경제현황

| | |
|--------------|---|
| 국명 |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
| 위치 |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
| 면적 | 1,219,090km ² - 한반도의 5.5배, 남한의 12배 |
| 기후 | 내륙 지방(온대성), 서부 해안(지중해성), 동부 해안(아열대성), 건조기후 |
| 수도 |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
| 인구 | 6,062만명(2022년) |
| 주요 도시 |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케이프타운(Cape Town), 더반(Durban), 프레토리아(Pretoria) |
| 인종 구성 | 흑인(80.8%), 혼혈(8.8%), 백인(7.8%), 인도/아시아계(2.6%) |
| 언어 | 영어, 아프리카니어, зулу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
| 종교 |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
| 국경일 | 4월 27일(Freedom day, 1994년 민주 정부 수립 기념일) |
| 정부 형태 | 대통령 중심제(내각제적 요소 가미: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등) |
| 국가 원수 | Cyril Ramaphosa(대통령, 취임일: 2018년 2월) |
| GDP(명목) | 4,180억 달러(2021년) |
| 1인당 GDP(PPP) | 14,400 달러(2021년) |
| 화폐 단위 | Rand(랜드), 2022년 6월 R15/\$ 선 |
| 교역 규모 | 2,172억 달러(2021년) - 수출: 1,237억 달러(금, 다이아몬드, 백금, 기타 금속 및 광물 등) - 수입: 934억 달러(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 |
| 경제적 강점 | 광물자원 풍부, 공업기반 양호, 금융업 발달 |
| 경제적 약점 | 전력난, 높은 실업률, 노사 분규, 치안 불안, 랜드화 가치 변동성 높음 |

3. 한국과의 관계

| | |
|---------|---|
| 외교관계 수립 | 1992.12.01 |
| 교역 | 약 36.1억 달러(2021년) - 수출 : 9.89억 달러(자동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 - 수입 : 26.2억 달러(철광, 금은 및 백금, 석탄 등) |
| 진출 현황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합상사, 대우포스코 등 20여 개 기업 |

II. 경제 및 산업 현황

1. 경제

□ 경제현황 및 전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된 인프라와 금융 산업, 타 국가 대비 높은 소득 수준 등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 역할을 수행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20%를 점유하는 역내 경제 대국
- 그러나 2014년 이래 1%대의 낮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사상 최저치인 -6.4%로 감소
 -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 남아프리카 항공(SAA) 등 주요 국영기업의 재정 부실, 전력수급 불안정, 높은 실업률 등이 만연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남아공 정부의 강도 높은 록다운 시행으로 광업 및 제조업 등 주요 경제활동 중단되며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반면, 중산층 증가에 따른 소비재 및 의료, 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 성장, 소비자물가 안정세 등은 경제 성장의 주요 긍정적 요인
- 2020년 10월 남아공 정부는 경제재건 및 회복 계획을 발표하여 인프라 투자,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투자 및 경제 성장 가속화 등의 목표 천명
 -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 달성, 향후 4년간 인프라 부문에 1조 랜드 투자 유치, 향후 3년간 1,000억 랜드 투자를 통한 8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2022년까지 약 11,800MW의 신규 전력 확보 등 추진할 계획
- 그러나, 여전히 높은 재정적자 비율과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취약한 환율 불안정성, 높은 실업률 등이 남아공 경제 성장을 저해
 - 2022년 남아공 경제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EIU)

<남아공 경제성장 현황 및 전망>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0.1 | -6.4 | 4.9 | 2.1 | 2.4 | 2.7 | 3.3 |

* 자료원: EIU

□ 정부재정

- GDP 대비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안정화가 경제성장 안정화에 필수적
 - 경기부양, 국영기업 지원,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세입 부족, 공공임금 인상 요구, 국영기업 부채 등이 부담으로 작용
- 회계연도 2021/22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7%로 완화
 - 2022/23년 6.1%로 다소 확대되나 2026/27년 4.9%까지 낮아질 전망(EIU)
- 2017년 48.4% 수준이었던 남아공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0년 70.4%를 기록, 2023년 74.7%까지 확대될 전망(EIU)

□ 대외경제

- 2021년 남아공 GDP 대비 경상수지는 3.7%의 흑자를 기록
 -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높은 무역흑자(GDP 대비 7.3%에 해당)를 기록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
- 2022년 원유가 아닌 원자재 가격 인상은 둔화되고 원유 가격은 폭등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1%)될 전망(EIU)

□ 환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달러 대비 랜드화 환율은 R19.26/\$까지 절하
 - 이후 원자재가격 상승, 국제 유동성 공급 등으로 R14~R15/\$ 수준 회복
- 2022년 평균 환율은 \$15.5/\$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EIU)

□ 신용등급

- 국제 신용평가사 3사 모두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으로 평가
 - 신용평가사들은 남아공 국영기업들의 경영난 지속, 높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부진한 경제성장 등을 우려하며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

<남아공 신용등급 현황>

| 평가사 | 외화표시 신용등급 | 비고 |
|---------|-----------|-------|
| Moody's | Ba2 | 투자부적격 |
| S&P | BB- | 투자부적격 |
| Fitch | BB- | 투자부적격 |

* 자료원: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취합

□ 금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3.5% 금리를 유지해왔으나 2021년 말부터 인상 추세
 - (금리 현황) 3.5%(2021년 7월) → 3.75%(2021년 11월) → 4%(2022년 1월) → 4.25%(2022년 3월) → 4.75%(2022년 5월)
-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움직임, 랜드화 가치 하락, 물가상승 등에 따라 2022년 연중 금리 추가 인상 가능

□ 물가

- 낮은 유가, 풍년 등에 따라 2021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4.6%를 기록
-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5.8%로 확대되며 남아공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3~6%) 상한선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EIU)
 -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기인한 유가 및 식품 가격 상승, 물류비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

<남아공 주요 경제 지표>

| 구분 | 단위 | 2019 | 2020 | 2021 | 2022f | 2023f |
|------------------------|-------|---------|---------|---------|---------|---------|
| 명목GDP | 백만 달러 | 388,145 | 335,331 | 418,784 | 416,194 | 427,418 |
| 1인당GDP(PPP) | 달러 | 14,637 | 13,685 | 14,400 | 15,574 | 16,161 |
| 실업률 | % | 28.7 | 29.2 | 34.2 | 37.7 | 37.9 |
| 환율(R:US\$, end-period) | 랜드 | 13.97 | 14.65 | 15.93 | 16.14 | 16.80 |
| GDP 대비 정부부채 | % | 57.3 | 70.4 | 69.1 | 73.2 | 74.7 |
| 외환보유액 | 백만 달러 | 55,060 | 55,013 | 57,589 | 64,232 | 63,019 |

* 자료원: EIU

2. 산업

□ 산업 구조

- 남아공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금융, 유통, 서비스 등 3차 산업까지 고루 발전한 성숙된 산업구조 보유
 - 2021년 기준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3차 산업(71.4%)>2차 산업(18.1%)>1차 산업(10.5%)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금융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제조업, 광업, 소매업 등이 남아공 GDP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
 - 세부적으로는 ICT, 의료, 자동차, 소비재 산업 등이 유망
 - 안정적 전력 수급,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기술자 양성 및 고급인력의 노동시장 공급 확대 등은 전반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

□ 주요 산업

- (광업)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
 - 전체 GDP의 약 8%, 총수출의 약 30%를 차지, 약 50만 명의 고용효과 창출
 - 세계 크롬 매장량의 35.7%, 망간 30.3%, 형석 13.2%, 금 11.1%를 차지하며 세계 5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
 - 외국인과 백인의 광산업 소유권을 제한하고 흑인 비중을 30%로 규정하는 수정 광업 헌장, 노조파업 및 인건비 상승 등이 광업 침체 요소로 작용
- (농업) 주식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 산업
 - 남아공 전체 노동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물 중에서는 현지인들의 주식인 옥수수 밀(Maize) 재배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농업 생산량 급감은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
 - 보상 없는 토지개혁 정책 이행여부가 남아공 농업의 투자 불안요소
- (철강) 남아공 제1의 제조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위 철강 생산국가
 -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산업은 남아공 정부의 꾸준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발전,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 차지

- (인프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프라 건설시장을 보유
 - 역내 타 국가 대비 잘 발달한 도로,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이 높은 편
 - 남아공의 전력화율은 85.5%로 국영전력공사(Eskom)는 주로 석탄 발전(90%)을 통해 남아공과 아프리카 전체 전력의 각각 95%, 45%를 생산
 - 더반,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등 주요 항만과 대형 국제공항(요하네스버그, 더반, 케이프타운)을 운영, 아프리카의 교통 요충지 역할 수행
- (석유·화학) 남아공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 점유하는 대형 산업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이 주요 생산제품으로 자동차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플라스틱 및 고무 생산 또한 증가 추세
 - 석탄에서 액화석유를 추출하는 CTL(Coal To Liquids) 기술과 천연가스로 합성연료를 제조하는 GTL(Gas To Liquids) 기술을 보유
 - 2018년 남아공 Mossel Bay 인근에서 석유 10억 배럴과 동일한 양의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 향후 가스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
- (자동차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남아공 정부는 자국 생산능력 배양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
 - 남아공 정부는 정부 주도적 정책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BMW, 도요타, 폭스바겐 등 세계 주요 메이커들의 생산공장이 운영 중이며 현대자동차, 르노, 볼보 등 다수 기업의 조립공장이 남아공에 진출
- (소매업) 신형중산층 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남아공 소매업 동반 성장
 - 글로벌 기업들은 아프리카로의 진출기지로 남아공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대형 유통기업들 또한 꾸준히 성장하며 해외 진출도 가속화
 - 높은 모바일 보급률 및 온라인 플랫폼 확대를 기반으로 온라인·모바일 시장이 빠르게 성장, 최근 15년간 연간 20%가 넘는 성장률 기록
- (ICT) 높은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률에 따라 ICT 산업도 발달
 - 2021년 남아공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약 1억 명, 모바일 보급률은 163%
 - MTN, Vodacom, Rain 등 주요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5G 서비스 도입

□ 주요 정책 및 규제

-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급진적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산업정책행동계획 (Industrial Policy Action Plan, IPAP)을 추진 중
 - 경제성장, 수출증진, 제조업 환경 구축,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 생산, IT 기술 발전, 정책적 확실성 강화 등이 주요 정책
 - IPAP 2018/19-2020/21은 공공조달 시 현지조달 강화, 산업육성자금 및 인센티브 확대, 특별경제구역활성화, 혁신 및 기술력 강화 등을 토대로 자동차, 섬유, 금속가공, 농산물가공 등 7개 중점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
-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개발지구(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와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운영
 - IDZ는 특정 산업단지가 아닌 전반적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산업단지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항 또는 항구 인접 지역에 설치
 - 입주 시 법인세 감면, 통관 편의 제공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 라마포사 대통령의 1,000억 달러 투자 유치 계획으로 각종 인센티브 확대
 - 세금 면제의 경우 법인세 특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금융지원은 남아공 산업개발청(IDC: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남아공 산업부는 투자 지원기관 Invest SA OSS(One Stop Shop)을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 등 4개 도시에 오픈
-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BBBEE) 시행 중
 - 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흑인 기업에 대한 우대구매 정책이 핵심
 -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남아공 정부의 사업면허 발급 및 정부 발주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
 - 공공조달 우대정책(Preferential Procurement Regulations)에 따라 공공기관 공개 입찰 참가 시 BBBEE 등급 보유 필수, 높은 점수 시 유리
 - 정부 외 거래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 보유 기업과 거래 시 자사 등급에 유리,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

Ⅲ. 교역 및 투자

1. 대세계 교역

□ 교역 규모

- 2021년 남아공의 대세계 교역액은 전년 대비 40.6% 증가한 2,172억 달러
- 수출(+44.7%), 수입(+35.7%) 모두 증가하며 전체 교역규모 확대

<남아공 수출입 통계(천 달러)>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수입 | 89,239,477 | 93,762,718 | 89,771,474 | 85,565,730 | 123,779,339 |
| 수출 | 83,192,725 | 93,013,297 | 88,138,992 | 68,887,648 | 93,446,208 |
| 무역수지 | 6,046,752 | 749,421 | 1,632,481 | 16,678,082 | 30,333,131 |

* 자료원: GTA

□ 교역 특성

- (국가) 중국이 최대 교역국 자리를 유지, 독일과 미국이 2, 3위 기록
- 인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그 외 주요 수입국

<2021년 주요 국가별 수출입 통계(백만 달러, 증감 %)>

| 구분 | 중국 | 독일 | 미국 | 인도 | 영국 | 일본 |
|----|---------------|---------------|---------------|--------------|--------------|---------------|
| 수출 | 13,851(33.99) | 10,523(49.12) | 13,082(83.48) | 4,265(36.22) | 8,215(95.25) | 8,258(115.74) |
| 수입 | 19,183(34.64) | 7,650(22.15) | 6,569(48.98) | 5,336(48.40) | 1,877(10.31) | 2,598(35.87) |

* 자료원: GTA

- (품목) 광물자원, 자동차 등을 수출,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등 수입

<남아공의 對(대)세계 수출입 5대 품목(백만 달러, 증감 %)>

| 품목 (HS Code) | 수출 | | | 수입 | | | |
|-----------------|--------|--------|-------------------|-----------------|--------|-------|-------------------|
| | 2019 | 2020 | 2021 | 품목 (HS Code) | 2019 | 2020 | 2021 |
| 귀석·반귀석·귀금속(71) | 15,307 | 19,881 | 34,956 (75.82) | 광물성 연료(27) | 14,829 | 9,667 | 15,416 (59.47) |
| 광·슬랙·회(26) | 13,111 | 12,933 | 18,545 (43.39) | 기계류(84) | 11,201 | 9,051 | 11,268 (24.49) |
| 차량류(87) | 11,393 | 8,392 | 10,705 (27.56) | 전기기기(85) | 8,556 | 7,067 | 8,597 (21.65) |
| 광물성 연료(27) | 8,794 | 6,782 | 10,278 (51.55) | 기타(98) | 7,437 | 5,106 | 7,509 (47.06) |
| 기계류(84) | 5,473 | 4,965 | 6,623 (33.38) | 차량류(87) | 6,890 | 4,371 | 6,372 (45.75) |

* 자료원: GTA

2. 한-남아공 교역

□ 교역 규모

- 양국 교역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36억 달러로 수출금액 기준 46위
 -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 對남아공 무역수지는 16.3억불 적자

<한국의 대(對)남아공 교역동향(백만 달러, 증감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수입 | 970 | 1,022 | 834 | 666 | 989 |
| 수출 | 2,309 | 2,356 | 2,186 | 1,692 | 2,621 |
| 교역 규모 | 3,279 | 3,375 | 3,020 | 2,358 | 3,610 |
| 무역수지 | -1,339 | -1,334 | -1,352 | -1,026 | -1,632 |

* 자료원: KITA

□ 교역 특성

- 자동차, 기계류를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주로 수입
 - (수출) MTI 3단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모두 증가
 - (수입) 자동차, 아연광 외 10대 품목 수입 모두 확대

<한국의 대(對)남아공 수출입 10대 품목(백만 달러, 증감 %)>

| 품목 | 수출 | | | | 수입 | | | | |
|--------|------|-------|------|-------|--------|------|---------|------|-------|
| | 2020 | | 2021 | | 품목 | 2020 | | 2021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자동차 | 95 | -53.9 | 251 | 164.7 | 철광 | 521 | -12.5 | 919 | 76.3 |
| 합성수지 | 50 | -16.0 | 95 | 91.1 | 금은및백금 | 314 | -13.8 | 381 | 21.2 |
| 건설광산기계 | 42 | -26.6 | 52 | 23.0 | 석탄 | 95 | -71.6 | 359 | 276.6 |
| 자동차부품 | 30 | -33.6 | 41 | 37.1 | 합금철선철 | 159 | -22.3 | 314 | 97.2 |
| 석유제품 | 35 | 77.3 | 39 | 10.4 | 기타금속광물 | 103 | -7.9 | 172 | 68.0 |
| 기타석유화학 | 21 | -5.6 | 29 | 39.9 | 자동차 | 123 | -44.6 | 73 | -41.9 |
| 철강판 | 27 | 3.1 | 28 | 5.2 | 식물성물질 | 61 | 3,798.9 | 69 | 12.3 |
| 종이제품 | 21 | -16.5 | 25 | 21.4 | 아연광 | 71 | -5.9 | 53 | -24.7 |
| 동제품 | 9 | 13.4 | 24 | 156.9 | 곡실류 | 20 | 53.2 | 45 | 128.3 |
| 플라스틱제품 | 17 | -17.0 | 23 | 30.5 | 동제품 | 14 | -68.1 | 40 | 183.6 |

* 자료원: KITA

3. 투자

□ 세계의 대남아공 투자현황

- 2020년 대(對)남아공 FDI 유입액은 31억 달러를 기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유입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콩고에 이은 제2의 투자처이자, 남부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의 FDI 유입

<대(對)남아공 FDI 유입 추이(백만 달러)>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2,235 | 2,008 | 5,450 | 4,624 | 3,106 |

* 자료원: UNCTAD

- 미국, 영국 등 전통적 투자국 외에 중국을 선두로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對)남아공 투자가 가속화
 - 중국, 일본 등은 국가 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인프라, 자동차, ICT 분야 등에서의 민간 투자도 활발
 - 2018년 5월 라마포사 대통령은 중동 방문 시 총 2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 한국의 대남아공 투자현황

- 1995년 만델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나 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
 - 한국 대기업 등이 남아공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한 것이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
- 우리나라의 대(對)남아공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 2013년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누계 투자액은 약 3억 달러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많고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을 점유

<최근 3년간의 한-남아공 투자 진출 현황(단위: 건, 개, 백만 달러)>

| 연도 | 신규법인수 | 투자금액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
| 2018 | 0 | 3 | 11 | 14 |
| 2019 | 1 | 5 | 5 | 2 |
| 2020 | 0 | 3 | 8 | 1 |
| 2021 | 0 | 2 | 13 | 9 |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IV. 시장 특성 및 미팅 시 유의사항

1. 시장 특성

□ 시장 구조

-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경제 동맹체제인 SADC GDP의 약 40%를 점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최대 시장
 - 남아공은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비해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 많은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조업도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
- (확연한 소비계층 구분) 흑인계층은 실업률이 높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백인들은 유럽 수준의 부를 보유,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중간계층을 형성
 - 부유층인 백인 계층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대상자로서 흑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도 남아공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로서 활동
 - 흑인 계층은 흑인 정부 집권 이후, 정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신흥 부유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다수는 빈곤층
 - 흑인, 백인 다음으로 최대 인종인 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진출, 현재 장관 및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등 정/재계에 걸쳐 현지에 동화

□ 시장 관행

- (공급자 중심 시장)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UN의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바, 남아공 시장은 소비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변모
 - 동 관행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현재에도 남아있는데, 장기간 신용이 확보되지 않는 한 물품 구매에 앞서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
 - 공급자 위주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율이 책정되고 있어, 수입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의 약 2~3배 수준

- (에이전트 중심시장) 부문별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남아공 수입상들은 대부분 수입 상담 시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
 - 남아공은 시장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복수 수입상에게 물품을 공급할 경우, 시장을 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 독점 에이전트권 요구의 배경
 - 섬유, 기계, 전자제품 및 부품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5% 정도의 커미션을 요구
 - 남아공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 및 독특한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

2. 미팅 시 유의사항

- (인종 및 종교 문제 언급 자제) 1994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인종문제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
 - 남아공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종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가격 결정시 높은 유통마진 고려) 남아공은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수입 가격에 큰 차이 발생
 - 현지 시장가격과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은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출 가격 결정 시 현지의 시장가격을 고려하되 높은 유통 마진을 충분히 감안
- (에이전트 상담 시 유의사항) 남아공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에이전트 간에는 정보교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 에이전트와의 상담결과가 다른 바이어에게도 알려질 것임을 유념
 - 바이어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남아공에서는 부적절

V. 방문 및 체류 안내

1. 방문 안내

□ 남아공 출입국 절차 및 비자

- 출입국 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심사를 진행
 - 남아공은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공항에서 방문비자(1개월)를 발급하므로, 1개월 이내 체류 시 한국에서 사전 비자 발급은 불필요
 - 비즈니스 출장자와 같은 단기 방문자는 왕복항공권 지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 입국심사 후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은 非신고구역(Green Channel)과 신고구역(Red Channel)으로 구분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남아공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없을 경우 코로나 음성확인서), 별도 격리 의무는 없으나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 시행, 시설 격리 등 진행될 가능성 존재
- 최근 중국인 방문객들의 불법적 물건 반입이 빈번, 동양인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절차가 강화
 - 제품 샘플 등을 소지하고 오는 경우 남아공 세관에 신고를 하고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TA Camet을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
 - 대부분의 출장자들은 세관 신고 없이 샘플 등을 반입해 오고 있는데,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예방접종

- 한국에서 남아공 입국 시에는 별도의 예방접종은 불필요
 - 특히 요하네스버그는 말라리아, 황열병 등과 같은 풍토병 안전지대
 - 남아공 내 크루거 국립공원이나 인근 짐바브웨 및 모잠비크 국경지대 등은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여름철(11월~3월)에 동 지역을 방문 할 경우에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고

□ 환전

- 남아공의 화폐단위는 랜드(Rand)이며 지폐는 10, 20, 50, 100, 200랜드
 - 2022년 6월 기준 환율은 1\$당 약 15랜드이며, 은행, 호텔, 환전소, 공항 등에서 환전할 수 있고 환전 시에는 여권 필요
- 남아공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소액만 환전하고 큰 금액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많은 양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강도 등 범죄 타겟이 될 수 있음

□ VAT 환급

- 남아공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 시 부가세 15% 환급 가능
 - 물품 구입액이 R250 이상인 경우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 가능(호텔비, 렌트비, 가이드비, 식음료비, 식사비 등 증빙할 수 없는 대상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VAT 환급에는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만 VAT 환급절차를 여유 있게
 - 물품을 구매한 상점에서 VAT 환급 영수증 발급
 - 공항에서 체크인 전 공항 VAT 환급 심사대에서 VAT 환급영수증과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 도장을 받음
 - VAT 환급소에 가서 여권과 세관원의 도장이 찍힌 Tax Invoice를 제출
 - VAT 환급소 직원은 환급금액을 계산, VAT Refund Card를 전달
 - R3000 이하의 경우 3일 이내에 발급된 카드로 환급, 카드로 직접 물품 구매 또는 MasterCard® Acceptance Mark가 적힌 ATM에서 출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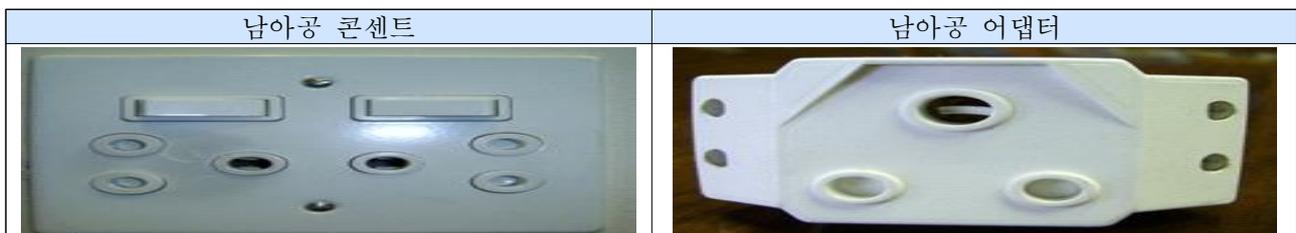
2. 체류 안내

□ 기후

- 남아공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이며,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나 봄, 가을은 대체적으로 짧은 편
 - 연평균 기온은 약 17°C, 강수량은 466mm로 연간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지역이 20%, 200mm~600mm 지역이 50%, 600mm 이상인 지역이 30%
- 요하네스버그는 해발 1,750mm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조한 기후
 - 일교차가 매우 크고, 특히 겨울에는 아침/저녁으로 영상의 기온이지만, 체감온도는 영하까지도 하락(여름철 평균기온은 낮 30°C, 아침저녁 20°C)

□ 사용 전압

- 남아공의 표준전압 및 주파수는 220~250V/50HZ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은 어댑터만 변경하면 별도의 전압조절장치 없이 사용 가능
 - 남아공 플러그는 3개의 둥근 구멍이 있는 삼각형 모양
 - 어댑터는 호텔에 비치되어 있거나 로비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할인마트(Pick n Pay, Checkers, Game 등)에서도 구입 가능(한화 2,000원 내외)



□ 전화 이용방법

- 한국(서울)으로 전화하는 방법
 - 국제전화: 00-82(한국국가번호)-2(서울지역번호)-전화번호
- 남아공 내 전화 요령
 - 지역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 가능
 - 지역번호: 요하네스버그(011), 프레토리아(012), 케이프타운(021), 더반(031)

□ 인터넷 환경 및 사용

- 광케이블이 일반 가정에도 도입되기 시작하며 발달 중이나 요금이 비싸고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은 대부분 느리고 불안정
 - Business Centre 또는 일반 룸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추가 요금 발생 가능)
 - 일부 대형 몰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기도 함

□ 교통편 이용방법

-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샌톤 지역 간 고속철(Gautrain)을 이용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
 -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후 도착 출구로 나와 안내 정보 표지판 옆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층 올라가서 공항 내 도보 20~30m 후 고속철도 역 도착



공항(OR Tambo)에서 Sandton까지 : R191

<Sandton 지역 지도, 전시장, 코트라무역관, 호텔>



-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이용은 절대 금지
 -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공인된 택시를 이용하고, 가능한 통역원 또는 지인 등과 함께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

*****남아공 교통편 이용 시 참고 사항*****

남아공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함. 공항택시가 운행되고 있지만, 택시강도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실제로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했다가 강도를 당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호텔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항셔틀버스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 남아공 내 거래선에 픽업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공항에서 직접 차량을 렌트할 수도 있으나,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복잡하여 잘못하면 범죄 우발지역인 다운타운 및 흑인 밀집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음.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호텔에 신청하여 콜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람. 야간에 도착하는 항공일정은 위험함. OR Tambo 국제공항에는 여행객들을 노리는 범죄조직이 많으므로 특히 동양인의 경우 야간에 도착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야 함. 요하네스버그는 치안 상황이 좋지 않아 외국인이 거리를 걸어다닐 경우 주야를 불문하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음.

- 주요 렌트카 회사 홈페이지
 - (AVIS) www.avis.co.za
 - (BUDGET) www.budget.co.za
 - (HERTZ) www.hertz.co.za

*****남아공 여행 시 참고 사항*****

- 팁 관행
 - 식당에서는 10% 정도의 Tip을 지불하며 호텔에서 룸서비스나 포터에게 미화 1불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되며 택시 이용에는 Tip이 없음
- 구두담이
 - 주요 호텔 정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약 20랜드(미화 1불 50C) 정도의 Tip을 지불
- 특산품
 - 아프리카 전통 공예 장식품이나 구슬공예, 건강식품(악마의 발톱, 오메가3, 모링가, 루이보스) 등
- 근무시간
 - 일반 업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토·일요일은 휴무임. 소매 업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며 대형 쇼핑몰은 오후 8시까지 오픈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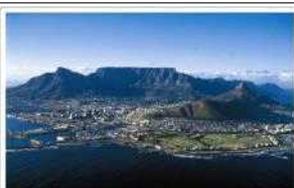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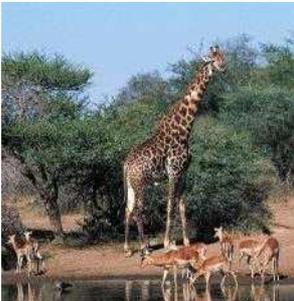
❑ 체류 시 유의사항 (중요)

-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치안 국가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가 빈번히 발생
- 외국인 방문객은 범죄 타겟이 되기 쉬우므로 다음 행동 지침 필히 준수
 - (공항 도착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출장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미행 강도 범죄가 성행하므로 중요한 귀중품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 소지,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도 미행 차량이 있는지 수시로 주의를 기울일 것
- (단독외출삼가) 범죄율이 높은 빈민가 지역인 요하네스버그 중심가(CBD)나 알렉산드라 지역 등은 출입을 삼가며 언제든 단독 외출은 자제
- (야간외출금지) 어두워져 주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된 차량을 이용
- (귀중품 관리) 귀중품은 반드시 호텔에 예치하거나 본인이 소지. 호텔에서 식사 시 지갑을 방안에 두고 가는 경우에도 청소원이 훔치는 사례가 있으며 상담 시에도 상의 안에 귀중품을 두고 의자에 걸지 않도록 함. 차 유리창을 깨고 내부 소지품을 훔쳐가거나 Jamming(리모콘 잠금장치에 전파 교란을 주어 문이 잠기지 않게 한 후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 사례가 빈번하므로 차량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행위는 삼갈 것
- (환전 시 유의) 인적이 드문 곳이나 노상에 위치한 현금인출기 등은 이용을 삼가고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경우 가능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택하여 인출 후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것
- (폭력시위 발생 시) 남아공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가중에 따라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택시 조합은 주로 도시간 고속도로의 통행을 막고 타이어와 차량을 불태우는 무력 시위를 벌임. 사태 발생 시 군중이 모여 있는 집결지에 접근하지 않고, 외국인혐오범죄(Xenophobia) 유의
- (피습 시) 괴한의 피습을 받을 경우 저항하거나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 대부분의 범죄자는 총을 소지하고 있음
- (신속피신) 외출 시 귀중품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동료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 신속히 피신

VI. 주요 관광지 및 연락처

□ 관광 명소

| | 관광지 | 안내 |
|----------------------|---|--|
| Gold Reef City |  | <p>과거에는 금광이었으나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 요하네스버그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ANDTON 지역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소요됨. 롤러코스터 등 놀이 시설과 지하 280m까지 내려가서 과거 금광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음</p> |
| Lion Park |  | <p>요하네스버그 중심지에서 서북쪽 외곽으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함. 약 50여 마리의 사자들이 있으며 기타 얼룩말 등 초식 동물들이 있음. 투어 프로그램에 따라 입장료는 별도</p> |
| Sun City |  | <p>카지노, 호텔, 수영장, 골프장 등으로 조성된 SUN CITY는 요하네스버그 서북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로 약 2시간 거리임. 요하네스버그 SANDTON SUN 호텔 앞에서 셔틀버스가 운영</p> |
| Table Mountain |  | <p>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산 정상에 마치 테이블처럼 평평함. 케이블카를 통해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케이프타운 시내와 대서양, 인도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p> |
| Cape Point |  | <p>케이프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희망봉으로 알려진 곳. 이곳은 아프리카 남단으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개척 시 처음 도착한 지점으로 유명함</p> |
| National Kruger Park |  | <p>남아공 북쪽 음푸말랑가 주에 소재한 자연 동물 공원으로 사자, 코끼리, 기린 등 각종 야생 동물을 차로 이동하면서 보는 곳,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약 5시간 정도 소요됨. 사파리는 일정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수렵 대상 동물도 한정되어 있으나 게임을 하듯이 자동차를 타고 공원 곳곳을 이리저리 오가며 각종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도로를 갖춤</p> |

☐ 체류 중 주요 연락처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주소: 18th Floor, Sandton Office Tower, Corner. Rivonia & 5th Street, Sandton, South Africa

| 구 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비 고 |
|----------------------------|--|-----------------|---|
| KOTRA JHB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 +27-11-784-2940 | +27-11-784-2983 | 손병일 본부장 : +27-66-010-5504 장선영 부관장 : +27-76-699-9008 허종원 차 장 : +27-64-866-2255 전준형 과 장 : +27-82-083-6035 황선경 과 장 : +27-64-946-6339 |
|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 +27-12-460-2508 |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 생시, 24시간) : +27-66-332-5897 |
| 한국식당 | +27-11-234-7292 +27-11-465-3562 +27-72-913-3269 +27-11-467-0488 +27-12-346-3260 +27-21-671-4604 | | 대장금 (Rivonia, JHB) 아리랑 (Fourways, JHB) 반찬 (Sandton, JHB) 한국관 (Fourways, JHB) 신라 (Pretoria) 성북정 (Cape Town) |
| 한국식품점 | +27-11-803-2344 +27-71-555-9006 +27-12-362-0097 +27-76-835-5702 | | 코코로 리보니아 (Rivonia, JHB) 코코로 포웨이즈 (Fourways, JHB) 코코로 프레토리아 (Pretoria) 코리아 마켓(Cape Town) |
| 한인운영 여행사 | +27-11-465-0313 +27-11-234-1056 | | Gilbot Travel (윤혜선) Africa Tour Story (진윤석) |

☐ 유용한 현지 표현

| 한국어 | 영어 | 현지어 (Zulu: 줄루어) |
|-----------|--------------|-----------------|
| 안녕하세요 | Hello | Sawubona 사보나 |
| 어떻게 지내세요? | How are you? | Unjani? 운자니? |
| 감사합니다 | Thank you | Siyabonga 시야봉가 |
| 예 | Yes | Yebo 예보 |
| 아니오 | No | Cha 차 |
| 실례합니다 | Excuse me | Uxolo 콜로 |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